

6세 이전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친구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김 선 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만 6세 이전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분리 경험으로 정의하고 부모와의 분리 경험이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관계의 질, 우울 및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우고 모델 검증을 하였다. 첫째, 부모와의 분리 경험은 중기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불안정한 애착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애착의 불안정성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의 우울감과 외로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4, 학년 426명으로 분리경험 아동은 206명, 분리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아동은 220명이었다. 연구결과, 분리경험을 한 아동들이 분리경험을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의존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친구관계의 질에서 즐거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아동의 부모애착, 친구관계 질, 우울 및 외로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경로 모형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의 분리경험은 아동의 부모애착에 영향을 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친구관계의 질을 매개하여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3이 분리경험 모델로 지지되었다.

주요어 : 분리경험, 애착, 친구관계의 질, 우울, 외로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선 주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FAX : 02-928-9203 / E-mail : sunjukim501@hotmail.com

최근에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을 가진 여성들의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생의 초기부터 어머니와 분리되어 타인양육 되는 경험이 유아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의 초기에 형성한 애착관계가 이후 발달의 초석이 된다는 애착이론에 의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머니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양육의 질에 따라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분리경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 취업에 따른 타인 양육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 예로, 박성옥(1994)과 박주영(2000)은 타인 양육이 어머니 자신의 격리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분리경험이 유아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유영희(1979)가 부모와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 분리경험을 했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정서 장애를 연구하였으며, 그 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최근 애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양연숙(2000)은 타인양육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중기 아동기의 친구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윤소영, 2001; Schneider & Atkinson, 2001; Markiewicz, Doyle & Brendgen, 2002; Freitag, Belsky, Grossmann & Grossmann 1996; Lieberman, Doyle, & Markiewicz, 1999). 또한 애착이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이나 친구관계가 아동의 우울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성해, 2000; 오현미, 1999). 그러나 아직까지 분리경험이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이후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생의 초기 경험이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유아기 뿐 아니라 중기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아동상담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부모와의 분리 경험과 부모애착

Bowlby(1979)는 아동의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유지된다는 전생애적인 구성개념(lifespan construct)으로 애착을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애착의 연속성은 유아기에서 학령 전 아동기까지 종단적 연구(Main & Cassidy, 1985)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 안정성 분류법이 학령 전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의 분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에서 확인되었다(Ainsworth, 1979). Waters, Merrick과 Treboux(2000)가 12개월 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고 21년 뒤 추후 연구한 결과, 72%가 유아기의 애착유형과 성인기의 애착유형이 동일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유형에 변화가 있었던 28%의 피험자들 중 40%가 부모의 상실, 부모의 이혼, 부모의 심리적 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사를 겪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내어 특별한 부정적 사건이 없다면 대부분은 애착유형이 일관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erns, Klepac와 Cole(1996)은 아동기 중기와 후기의 아동들이 스트레스 시에 위안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험할 때 안전기반으로서 애착인물에게 계속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였다. 좀더 복잡한 대처기제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든 아동들에게

는 신체적 근접성의 유지가 분명히 덜 중요하게 되지만, 만일 도움이 필요할 때, 애착인물이 반응적이고 의사소통에 개방적일 거라는 믿음과 관련된 애착인물에 대한 유용성은 유지될 거라고 하였다(Bowlby, 1973). 예를 들어 아동은 슬프거나 아플 때 애착인물을 찾으며 (Bowlby, 1979), 따라서 더 나이든 아동들에게는 신체적인 근접성의 유지보다는, 애착인물의 유용성이 애착체계의 목표가 된다(Bowlby, 1987, Ainsworth, 1990).

분리경험 및 타인 양육에 대한 연구를 보면, 출생 후 처음 1년 동안 주당 20시간 이상 친부모가 아닌 타인의 양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친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더 많이 보였다고 한다 (Belsky, 1986). 하지만 미국의 NICHD(1997)의 연구 결과, 타인 양육의 시간의 양과 아동의 연령은 애착의 질에 대한 좋은 예언인자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낮은 반응성과 민감성에 관련된 부족한 양육의 질이 불안정 애착과 관련되었다. Lamb(1996)은 친모가 아닌 타인에게 양육된 아동에 대한 논문들을 리뷰한 결과, 불안정 애착에는 개별적인 아동의 기질과 연령 뿐 아니라 양육의 질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Jaeger와 Wienraub(1990)은 두 가지 적응 모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모성 분리 모델(maternal separation model)로 유아는 매일 반복된 분리 경험을 어머니의 거절로 경험하게 되며 어머니의 유용성 또는 반응성을 의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부재는 불안정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엄마와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양육의 질 모델(quality of mothering model)로 타인 양육이 유아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양육자의 행동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타인 양육자나 보모는 친어머니 만큼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유아를 돌볼 수 없으며, 그 결과

유아는 더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돌보는 시간보다는 돌보는 양육의 질이 영향을 주어 불안정한 애착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Craig, 1999). 아직까지 이 두 모델 중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연숙(2000)은 유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에서 12-18개월 사이의 영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타인양육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Belsky는 105명의 12개월 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타인 양육이 불안정 애착의 형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4개의 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분적인 타인양육 유아(part-time day-care)가 완전히 타인 양육되는 유아(full-time day-care)보다 부정적인 애착과 더 많이 관련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Roggman, Langlois, Hubbs-Tait & Rieser-Danner, 1994).

분리 경험은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이후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와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 분리경험을 했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분리경험이 아동의 정서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이 정상 가정의 아동에 비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유영희, 1979). 또한 주요 우울 장애로 치료 센터를 다니고 있는 16세 이상의 아동들 중 16세 전에 부모와 한달 이상 분리되었던 아동 6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있었던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우울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Hiroshi, Takahiro, Shigeru, Toshinori & Kiyohisa 2003). 위의 연구들에서 분리경험은 애착과도 관련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분리경험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애착과 친구관계의 질

부모와 아동간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은 애착의 지속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애착관계의 질에 따라 유아에게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형성되며 이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유아는 또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타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촉진시킨다.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에 비해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타인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좀더 긍정적인 기대와 신념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또래 친구들이 자신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이 기대와 일치하는 또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시도하게 된다 (Sroufe & Fleeson, 1986). 결과적으로, 좀더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들은 부모-자녀관계 안에서 좀더 협조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고 이것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일반화된다고 볼 수 있다 (Putallaz & Heflin, 1990; Youngblade & Belsky, 1992). 이러한 유능한 상호작용 유형은 또래와 좀더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키고(Hartup, 1986), 아동이 원하는 놀이친구와 좀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든다(Jacobson, Tianen, Wille, & Aytch, 1986). 그러나 불안정 애착 아동들은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는 타인들에 대해 부정적

인 시각을 갖기 쉽다. 결과적으로, 불안정 애착 아동들은 거절을 예상하기 쉬우며, 그들 자신이 거절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Goldberg, 1991).

수많은 종단적 연구들이 유아기에 안정애착으로 범주화되었던 아동들이 보다 우호적이며 또래들에게 좀더 인기 있다고 평가되고, 불안정 애착 아동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licker et al., 1992; Grossmann & Grossmann, 1991; Lewis & Feiring, 1989). 반면에 불안정 애착 아동들은 집단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놀림을 당하는 등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Grossmann & Grossmann, 1991).

Pastor(1981)와 Elicker 등(1992)은 유아기 때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동들이 또래들과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는 다는 것을 밝혔으며, Troy와 Strofe(1987)는 불안정하고 회피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동이 안정적 애착을 경험한 아동들보다 청소년기에 적의, 불안,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Kerns(1996)는 모와 아동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또래에게 더 수용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래와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가운데 부모들은 아동이 사회적 환경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안전기지(secure base)로의 역할을 계속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ieberman 등(1999)은 연구에서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또래간의 인기도와는 상관없이 질 높은 우정을 맺는다고 하였으며, 좀더 안정 애착된 아동일수록 친구관계에서 더 낮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더 안정적인 아동들이 더 나은 갈등해결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더

잘 통제하게 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두 차원들(의존성, 유용성)은 아동이 친구와 갈등을 덜 느끼는 것과 관련되지만, 특히 아버지의 유용성이 친구관계에서 더 낮은 갈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eberman 등(1999)은 아버지 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아버지가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놀이하 며 상호작용 할 때 아동에게 정서 조절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칠 수 있으며 이것은 아동이 갈등해결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MacDonald & Parke, 1984). 우리나라에서는 윤소영(2001)이 초등학교 5-6학년 을 대상으로 부모와 의 애착이 아동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우정의 질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친밀한 우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또래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우정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친구관계의 질과 외로움 및 우울감

친구관계의 질에 대해서는 애착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아동의 우울감과 외로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성혜, 2000; 오현미, 1999; Michel & Shelley, 2000; Howe & Parke, 2001).

친구관계에서 지각된 갈등은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회피적 성향 및 낮은 참여도와 관련된다고 한다 (Ladd, Kochenderfer & Cloeman, 1996). 또래로부터 고립되면서 아동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악순환이 지속된다(Ross, 1990). 그리고 외로움은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속감의 부족은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관련되어있으며, 심리적인 소속감과 외로움은 우울증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Hagerty & Williams, 1999).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외로움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않았거나 친구가 적거나, 친구와 중요한 상호적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이라도 친밀한 단짝 친구가 있을 때 외로움이나 우울, 학교 부적응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이현정, 1994; 김성혜, 2000; Parker & Asher, 1987). 사회적 기술 부족, 빈약한 교우관계, 또래들에게 낮은 인기도 등의 사회적 관계성의 실패는 아동과 청소년기 우울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Kaslow, Brown, & Mee, 1994).

분리 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애착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상당수가 이미 발표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경험, 우울감 등과 함께 관련지어 분리경험이라는 초기경험이 아동의 애착과 친구관계의 질, 우울과 외로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에 분리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머니의 응답을 통해 분리 경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회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6세 이전의 분리경험이 중기 아동기까지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리 경험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하루중 대부분을 함께 보낸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니었을 경우에 초점을 두어 “유아가 만 6세 이전일 때의 주양육

자는 아동이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8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아준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분리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분리경험이 애착형성과 친구관계의 질, 중기아동기의 우울감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 강남에 위치한 3개 학교의 4, 5학년 18학급, 강북에 위치한 2개 학교의 4, 5학년 18학급의 남녀 아동 총 1200명과 그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였다. 부모들에게 배포한 설문지는 총 1200부였으나 수거된 설문지는 모두 1064부였으며, 그중 부모가 분리경험을 보고한 경우는 211사례였는데, 부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206사례의 분리경험 집단을 얻을 수 있었다. 부모가 분리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853사례였는데 그중 부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남은 830사례에서 무선표집하여 220사례의 분리경험이 없는 집단을 얻었다. 연구에 사용된 표집수는 총 426사례였다. 자료의 기술적 통계를 위하여 SPSS 10.0 프로그램과 경로분석실시를 위해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분리경험 설문지(부모용)

부모를 통해 생후부터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에 대한 정보를 설문지를 통하여 얻었다. 아동의 성별, 연령, 분리경험의 여부, 분리기간, 분리시기, 타인양육자의 종류, 타인 양육장소, 타인양육자의 변경횟수와 분리의 규칙성/불규칙성 등을 측정하였다. 분리경험이 없을 때를 “1”로 있을 때를 “2”로 측정하였다.

아동기의 애착척도(아동용)

Kerns Security Scale(Kerns, 1996)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으로 나누어 총 15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쉽게 신뢰한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를 잘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다”의 양쪽 문장 중 한쪽을 선택한 후 ‘아주 비슷함’과 ‘조금 비슷함’ 중에 표시하도록 하여,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애착척도는 유용성과 의존성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4점에 가까울수록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애착 유용성과 의존성은 각각 6문항과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70과 .76으로 나타났다. 모애착 유용성과 의존성은 각각 6문항과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66과 .69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질 척도(아동용)

Furman과 Burhmester(1985), Mendelson(1995), Mendelson과 Aboud(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참고하여 이은해와 고윤주(1999)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Scale: FQS)’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친구관계의 질을 알아보는 소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 인정, 교제의 즐거움과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

족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을 알아보는 소척도는 총 8문항으로 갈등과 경쟁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아동용)

Asher 등(1984)의 외로움척도(loneliness scale)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나는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나는 외롭다”, “나는 버려진 듯한 느낌이다”, “나는 친구가 없다”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어있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우울증 척도(아동용)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 (1981)가 구성한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한유진(199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의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3점 척도로 우울의 심각성을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3이었다.

결 과

분리경험의 특성에 따른 차이

분리경험 집단 206명중 분리경험 사유는 모의 직장문제(142명), 별거나 이혼(7명), 모의 질병(3명), 경제적 이유(16명), 기타(19명), 무응답(19명)으로 대부분이 모의 직장문제였다.

분리경험의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아동이 만 6세 이전에 부모와 처음으로 분리되어

양육되기 시작한 시기를 0-6개월, 7-12개월, 13-36개월, 37개월 이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MANOVA 결과(표 1) 모애착($F=2.777, p<.05$)과 모유용($F=2.883, p<.05$), 긍정적 친구관계 질의 친구인정($F=2.24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모애착의 모유용성에 있어서, 분리시기가 37개월 이후일 때에 어머니에 대한 유용성이 가장 높고, 0-6개월일 때 두 번째로 높으며, 13-36개월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친구의 인정 척도에서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이전인 0-6개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분리에 대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3세 이후, 즉 37개월 이후에 처음 분리경험을 한 집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분리경험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양육장소에 따른 차이, 타인 양육자의 종류에 따른 차이 등을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리경험에 따른 차이

분리경험에 따른 부모애착, 친구관계의 질, 우울 및 외로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2) 분리경험이 아동의 모애착과 부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을 하위척도 별로 나누어 차이 검증한 결과 분리경험에 따라서 모에 대한 의존성($t=2.44, p<.05$)과 부에 대한 의존성($t=2.69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은 분리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리경험에 따라 긍정적 친구관계 질(정서적 안정, 신뢰감, 친밀감, 즐거움, 도움제공, 친구에게 인정받음)의

표 1. 부모와 분리시기에 따른 차이

	0-6개월 (N=86)	7-12개월 (N=19)	13-36개월 (N=50)	37개월이후 (N=37)	F
모애착	3.12(0.56)	3.04(0.48)	2.94(0.52)	3.23(0.41)	2.777*
모의존	3.09(0.57)	3.00(0.48)	2.96(0.55)	3.20(0.44)	1.783
모유용	3.17(0.69)	3.11(0.68)	2.91(0.68)	3.28(0.52)	2.883*
부애착	3.14(0.53)	3.08(0.59)	3.02(0.47)	3.21(0.52)	1.270
부의존	3.10(0.58)	3.06(0.55)	3.05(0.54)	3.20(0.54)	0.698
부유용	3.20(0.65)	3.11(0.72)	2.97(0.60)	3.22(0.59)	1.801
긍정적친구	3.02(0.60)	2.80(0.52)	2.81(0.65)	2.96(0.57)	1.712
즐거움	3.42(0.56)	3.28(0.54)	3.27(0.77)	3.39(0.57)	0.826
도움	2.80(0.73)	2.63(0.69)	2.70(0.76)	2.84(0.72)	0.636
인정	2.59(0.82)	2.17(0.68)	2.29(0.85)	2.41(0.83)	2.245*
정서안정	2.91(0.82)	2.61(0.85)	2.63(0.94)	2.89(0.73)	1.870
신뢰	3.29(0.76)	3.16(0.54)	3.14(0.82)	3.19(0.83)	0.484
친밀감	2.64(0.85)	2.49(0.73)	2.32(0.80)	2.63(0.83)	1.873
만족	3.47(0.63)	3.30(0.56)	3.32(0.74)	3.38(0.61)	0.742
부정적친구	1.82(0.61)	1.82(0.46)	1.87(0.57)	1.80(0.52)	0.132
갈등	1.72(0.48)	1.61(0.34)	1.72(0.59)	1.70(0.48)	0.303
경쟁	1.91(0.90)	2.03(1.01)	2.02(0.88)	1.90(0.92)	0.253
우울	13.42(7.94)	12.26(5.38)	14.72(7.88)	13.43(6.29)	0.606
외로움	1.37(0.63)	1.38(0.71)	1.49(0.87)	1.32(0.53)	0.490

* $p < .05$.

즐거움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19$, $p<.05$).

분리경험이 아동의 애착, 친구관계질, 우울 및 외로움에 미치는 경로모형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관찰변인과 잠재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 변인은 부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에 대한 관찰변인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변인은 소 척도인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 인정, 교제의 즐거움과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총합으로 구성된 긍정적 친구 관계의 질이라는 관찰변인과 갈등과 경쟁 소척도의 총합으로 구성된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이라는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 변인은 우울과 외로움의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관 분석결과(표 3), 분리경험은 모의존($r=$

표 2. 분리경험에 따른 차이

	하위척도	분리경험 없는 집단	분리경험 집단	<i>t</i>
		Mean(SD)	Mean(SD)	
모애착	전체	3.18(.44)	3.08(.52)	2.22*
	모의존	3.18(.49)	3.06(.53)	2.44*
	모유용	3.17(.56)	3.11(.67)	1.12
부애착	전체	3.20(.51)	3.10(.53)	1.93
	부의존	3.23(.52)	3.09(.57)	2.69**
	부유용	3.15(.66)	3.12(.65)	0.49
긍정적 친구관계	전체	2.96(.59)	2.91(.61)	0.86
	정서안정	2.78(.89)	2.77(.87)	0.10
	친구신뢰	3.19(.74)	3.21(.77)	-0.21
	친밀감	2.55(.82)	2.52(.83)	0.42
	즐거움	3.47(.58)	3.35(.61)	2.12*
	도움제공	2.82(.74)	2.73(.74)	1.32
	친구인정	2.44(.81)	2.41(.84)	0.39
	전체만족도	3.46(.59)	3.38(.66)	1.23
부정적 친구관계	전체	1.80(.56)	1.84(.57)	-0.79
	친구갈등	1.68(.53)	1.73(.50)	-1.06
	친구경쟁	1.91(.88)	1.95(.91)	-0.38
우울		13.66(7.33)	13.93(7.41)	-0.38
외로움		1.37(0.66)	1.38(0.67)	-0.23

* $p < .05$. ** $p < .01$.

-.117, $p < .05$), 부의존($r = -.129$, $p < .01$)과 긍정적 친구관계의 질의 즐거움 ($r = -.102$, $p < .05$)과 부적 상관을 보여 분리경험이 있을 때 애착과 긍정적 친구관계 질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모애착의 모의존성과 모유용성은 우울 ($r = -.270$, $r = -.394$, $p < .001$) 그리고 외로움($r = -.151$, $r = -.281$,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애착의 부의존성과 부유용성 모두 우울($r = -.245$, $r = -.333$, $p < .001$)

과 외로움($r = -.165$, $r = -.128$,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과 외로움은 긍정적 친구관계 질의 만족도($r = -2.00$, $r = -.185$, $p < .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의 갈등($r = .17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로움은 부정적 친구관계의 질의 갈등($r = .121$, $p < .05$)과 경쟁($r = .12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KCS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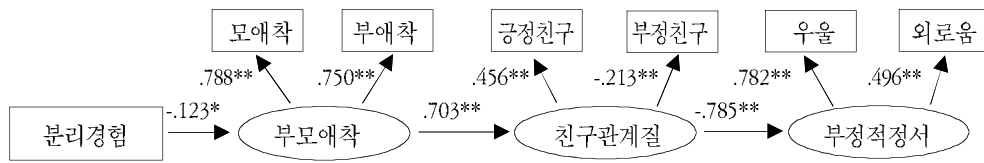


그림 1. 분리경험에 대한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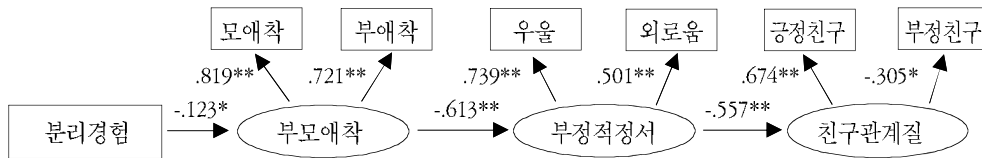


그림 2. 분리경험에 대한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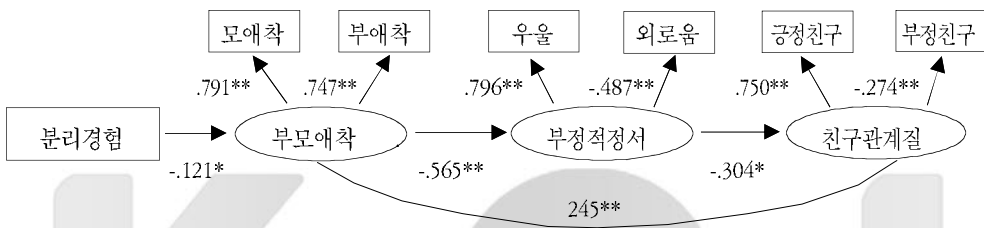


그림 3. 분리경험에 대한 모형 3

이론적 배경에 나타난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첫째, 부모와의 분리경험은 부모애착에 영향을 주며 둘째, 부모애착은 친구관계 질에 영향을 주고, 셋째, 친구관계 질은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여 연구 가설 모형 1의 경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 적합도(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 적합도(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 적합도(comparative fit index; C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그리고 원소간 근접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함께 사용했다

모형1의 검증 결과(표 4) 모형의 적합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초 적합치(GFI)가 0.984로 일반적인 수용준거인 .90(Bentler & Bonett, 1996)을 넘었고, 비교적 엄격한 적합도 지수인 비교 적합치(CFI)도 0.967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원소간 평균 차이(RMR)는 0.042로 수용준거인 0.1 수준 이하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원소간 근접 오차(RMSEA) 점수도 0.05로 수용준거인 0.05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개별 경로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분리경험이 있을수록 부모애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3, p=.05$). 부모애착의 수준은 친구관계의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703, p=.01$). 또한 친구관계의 질은 부정적

표 4. 연구모형별 부합도 지수 비교

연구모형	df	χ^2	GFI	AGFI	CFI	RMR	RMSEA
모형 1	12	24.928	0.984	0.962	0.967	0.042	0.050
모형 2	12	20.769	0.986	0.967	0.978	0.038	0.041
모형 3	11	16.470	0.989	0.972	0.986	0.033	0.034

정서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다($\beta=-.785, p=.01$). 즉 분리경험이 있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아지며, 부모애착은 친구관계의 질을 매개하여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형성한 연구 가설 모형 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나타난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애착과 친구관계의 질 뿐만 아니라 애착과 부정적 정서의 상관도 매우 높아서(표 3) 부모애착이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하여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연구 가설 모형2를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2는 기본 모형으로 가정한 모형1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적합도 지수의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GFI=0.986, CFI=0.978, RMR=0.038, RMSEA=0.041). 모형1과 모형2의 차이에 대해 분석해보면, 비교 부합치(CFI)의 차이(0.978-0.967=.011)에서 모형비교의 기준치인 .01을 초과하여 모형1보다 모형2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이 친구관계의 질에 일반화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Putallaz & Heflin, 1990; Youngblade & Belsky, 1992)가 있었고, 모형1에서도 지지되었던 것처럼 부모애착이 친구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연구 모형3을 가정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이나 모형2 보다 모형3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였다(GFI=0.989, CFI=0.986, RMR=0.033, RMSEA=0.034). 또한, 모형2와 모형3의

자유도 차이(12-11=1)에 의한 χ^2 값의 차이(20.769-16.470=4.299)에서도 .05수준에서 유의미한 χ^2 임계역인 3.84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모형3이 모형2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3개의 부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표4) 모형3이 가장 효율적인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즉, 분리경험은 부모애착에 영향을 주며, 부모애착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친구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주며, 부정적 정서는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3을 분리경험 모델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분리경험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관계의 질과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리경험의 시기, 이유, 규칙성과 불규칙성, 타인양육자의 종류와 같은 분리경험의 특성에 따른 애착, 친구관계의 질 그리고 우울과 외로움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분리경험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둘째, 분리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셋째, 분리경험이 애착, 친구관계의 질, 우울과 외로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리경험의 시기에 따른 차이.

분리경험의 시기를 0-6개월, 7-12개월, 13-36개월, 37개월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모애착 모유용, 긍정적 친구관계 질의 친구의 인정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애착과 모유용은 13-36개월에 가장 낮고 37개월 이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Bowlby(1969)가 애착의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에서 생후 6-8개월에서 3세에 이르는 시기는 애착대상에게 분명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로 애착 대상과 분리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며, 3세 이후인 4번째 단계는 인지적 성숙과 더불어 애착 대상의 외출에 대해 허용적이 되고 애착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애착 대상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애착 대상의 행동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친구의 인정척도에서 0-6개월에서 가장 높았고, 7-12개월에서 가장 낮았는데, Bowlby(1969)가 애착의 발달단계에서 0-6개월은 아직 특정한 개인에게 완전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고 하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이전인 0-6개월의 분리경험이나, 대상영속성을 획득하여 애착대상이 돌아올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3세 이후의 분리경험은 애착이나 친구관계 질에 영향을 적게 주었으며, 애착형성이 되었지만 불안정하여 분리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분리경험은 아동의 애착이나 친구관계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Bowlby(1973)가 특히 3세 이전 어머니로부터 분리경험은 아동의 정서상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모의 직업문제

로 분리경험이 부득이 할 때는 분리의 시기를 생후 0-6개월이나 3세 이후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리경험에 따른 차이

첫째, 분리경험이 있는 집단과 분리경험이 없는 집단이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을 (1)스트레스시의 애착인물의 유용성과 (2)아동의 애착인물에 대한 의존성(예: 아동이 애착인물과 가까이 있고 자 하고 의존하는 정도)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 고려하였는데, 분리경험이 있을 때 유의하게 부의존성과 모의존성이 낮았다. 반면에, 부유용성과 모유용성에선 분리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기 중기와 후기의 아동들이 스트레스 시에 위안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험할 때 안전기반으로서 애착인물에게 계속해서 의존하지만(Kerns, et al., 1996),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든 아동들에게는 신체적인 근접성의 유지(의존성)보다는, 애착인물의 유용성이 애착체계의 목표가 된다(Bowlby, 1987, Ainsworth, 1990)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이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저절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후 초기의 분리경험은 일반적인 아동들 보다 스트레스 시에 애착인물에게 의존하여 부모의 도움을 찾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를 더 낮아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리경험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인 부모에 대한 유용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둘째, 분리경험의 유무에 따라 친구관계질의 하위척도 중 친구관계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은 친구

관계에서 즐거움을 덜 경험하였다. 이는 애착이 일반화되어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Jacobson, Tianen, Wille, & Aytch, 1986).

셋째, 분리경험의 유무에 따라 우울 및 외로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유영희, 1979, Hiroshi et al., 2003)과 다르게 분리경험이 우울과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고려해봐야 할 점이다. 유영희(1979)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과 외로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리경험과 공격성 및 사회 관계 형성의 어려움의 관련성을 밝혔다. Hiroshi 등(2003)은 우울증 치료센터를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증과 16세 이전의 분리경험의 유의한 상관을 밝혔다. 이전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분리경험을 한 아이들이 공격성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우울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분리경험이 곧 우울이나 외로움을 경험할 것을 예언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분리경험을 했을지라도, 부모애착과 친구관계의 질, 양육태도, 가정환경, 생물학적인 영향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우울이나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우울이나 외로움은 분리경험보다는 부모와의 애착과의 연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애착 안정성이 낮을수록 우울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는 또래 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경험이 아동의 애착, 친구관계의 질, 우울 및 외로움에 미치는 경로모형 검증

경로모형 분석 결과, 분리경험은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애착은 부정적 정서를 매개

하여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애착이 친구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 모형인 모형3이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하였다. 따라서 모형3을 분리경험 모델로 선정하였다.

Bowlby(1980)에 따르면 어린 시절 경험되는 애착 안정성이 인지도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 불안정 애착은 우울 생성적 인지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우울 증상을 유발시키는 경로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을 매개하여 또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밝힌 이은주(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분리경험을 한 아동일수록 부모 애착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 안정성과 우울과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애착 안정성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경험이 우울과 외로움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바, 분리경험은 애착 안정성을 매개로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질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친구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rns(1996)와 Lieberman 등(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울과 외로움과 친구관계의 질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친구관계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에서 지각된 갈등과 낮은 수용도가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우울과 관련된다(Ladd, Kochenderfer & Cloeman, 1996, Kaslow, Brown, & Mee, 1994)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애착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의 양육경험은 전

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경험에 대한 연구도 유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나 성인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분리경험이 아동기 중기까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 뿐 아니라 부모의 회고적인 응답을 통하여 분리경험의 시기에 따른 분리경험의 특성을 비교하고, 생후 0-6개월이나 3세 이후의 분리경험이 애착이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설문조사라는 것과 객관적인 질문의 한계로 인해서 과거의 분리경험의 질을 자세히 예측하기 힘들었으며 부모님도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다. 과거의 분리경험의 질, 다시 말해, 타인양육의 질과 타인 양육의 시기에 대한 조사가 좀더 명확하게 될 수 있다면, 분리경험을 한 아동들 중에서도 타인양육의 질과 특성에 따라 애착 안정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불안정 애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타인 양육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좀더 안정적인 타인양육을 통해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해 양육되는 많은 아이들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여 분리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혜 (2000). 아동의 또래지위 정도와 외로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옥 (1994). 탁아 및 취업관련 변인에 따른 어

머니의 격리불안.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24-37
박주영 (2000).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 양육실태. 격리불안과 죄책감. 대한 가정학회지, 38(11)
손혜숙 (1998). 어머니와 교사의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연숙 (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 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오현미 (1999).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영희 (1979).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정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소영 (2001).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정 (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R.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Barry H. Schneider, Lesile Atkinson (2001).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86-100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9.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W. Ladd(Eds.),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77-106. Hillsdale, NJ: Erlbaum.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 393-400.
- Grace J. Craig, (1999). Human Development. Don Baucum-8th ed, 195-196
- Grossmann, K. E., & Grossmann, K. (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P. Morris, J. Stevenson-Hinde & C. Parke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93-114. New York: Routledge.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 E.M. Hetheringto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103-196. New York: Wiley.
- Hagerty, Bonnie M & Williams, A. Reg. (1999). The Effects of Sense of Belonging, Social Support, Conflict, and Loneliness on Depression. *Nursing Research*. 48(4), 215-219
- Jaeger, E. & Weinraub, M. (1990). Early nonmaternal care and infant attachment: In search of process. In K. McCartney(Ed.),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A social ecology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Jacobson, J. L., Tienan, R. L., Wille, D. E., & Aytch, D. M. (1986). Infant-mother attachment and early peer relations: The assessment of behavioral in an interactive context. In E. C. Mueller & C. R. Cooper(Eds.), *Process and outcome in peer relationships*. 57-78. Orlando, FL: Academic Press.
- Kaslow, N. J., Brown, R. T., & Mee, L. L. (1994). Cogni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childhood. Raynols & H. F. Johnson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97-121. New York: Plenum Press.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 Kerns, K. A.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friendship quality and their links to child-mother attach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137-15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eth H Rubin Hildy S, Ross.(1990).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mb, M. E. (1996). Effects of nonparental child care on child development : an updat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1, 330-342.
- Lewis, M., & Feiring, C. (1989). Early predictors of

- childhood friendship.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246-273. New York: Wiley.
- Lieberman M., Doyle A. B., & Markiewicz D. (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 202-213
- Lori A. Roggman, Judith H. Langlois, Laura Hubbs-Tait & Loretta A. Rieser-Danner (1994). Infant Day-Care, Attachment, and the "File Drawer Problem". *Child Development*. 65, 1429-1443.
-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s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arkiewicz D., Doyle A. B., & Brendgen M. (2001). The quality of adolescents' friendship: Associations with mot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ttachments to parents and friends,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4(4), 429-445.
- MacDonald, K., & Parke, R.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ichel B., & Shelley H. (1997). Peer experience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 Milam K. Freitag, Jay Belsky, Karin Grossmann, Klaus E. Grossmann & Hermann Scheurer-Englisch (1996). Continuity in parent-child relationship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and relations with friendship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7, 1437-1454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8(5), 860-870.
- Parker, J.,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inter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stor, D. L. (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lbi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6-335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 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189-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alter, Pamela & Munn, Penny. (2002). The separateness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in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3(2), 233-244.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51-71. Hillsdale, NJ: Erlbaum.
- Takeuchi, Hiroshi MD, Hiroe, Takahiro MD, Kanai, Takahiro MD, Morinobu, Shigeru MD, PhD, Kitamura, Toshinori MD, PhD, Takahashi, Kiyohisa MD, PhD & Furutawa, Toshiaki A. MD, PhD. (2003). Childhood parental separation experienc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 acute major depress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7(2), 215-219.
- Tasha R. Howe & Ross D. Parke(2001). Friendship quality and sociometric status: between-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loneliness in severely abused non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5(5), 585-606.
- Troy, M., & Stro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 Joining, moulding, conforming, helping, lov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eiss. R. S. (1989). Reflections an the present state of loneliness research. In M. Hojat & R. Crandall (Eds.).
- Waters, E., Merrick, S., & Treboux, D.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3), 684-689.
- Youngblade, L. M., & Belsky, J. (1992). Parent-child antecedents of 5-year old close friendships: A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00-713.

원고접수일 : 2003. 10. 17

게재결정일 : 2004. 7. 12

K C I

The Effects of Separation Experience before 6 age on friendship quality and depression of Children

Sun-Ju Kim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eparation experience from parents,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hip quality, depression and loneliness of children. Participants were 426 children(mean age=10.3) in the 4th and 5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s, including 206 who reported separation experience(SE) and 220 who didn't(NSE). Children reported the levels of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friendship quality, depression and loneliness; parents reported separation experience before 6 age of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pression, and loneliness between SE and NSE groups. But as for friendship quality, children who reported separation experience were likely to have less pleasure in the peer relationships. Second, to verify the general relationship among each variable, a path analysis was performed. It is shown that separation experience from parents which was mediated by attachment on mother and father and friendship quality influenced negative affect(depression and loneliness).

Keywords : separation experience, attachment, friendship quality, depression, loneliness